



노이저 교수의 칼빈연구를 위한 제안 117

## 노이저 교수의 칼빈연구를 위한 제안

Prof. Neuser's Suggestion for Calvin Study

김성욱  
(역사신학)

- I. 방한의 의미
- II. 노이저교수의 생애
- III. 칼빈의 예정론에 관하여
- IV.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이해
- V. 선교사로서 칼빈
- VI. 새로운 제안과 방법론

# 개혁신학의 학술원

## I. 방한의 의미

2003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세계적인 석학이신 Wilhelm H. Neuser 교수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다.<sup>1)</sup> 10월27일에 있을 웨스트민

1)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필자의 지도교수님(Doktorvater)이시다. 그리고 본교의 조직신학교수님이신 김성봉 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이기도 하신다. 김교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지도 받아 "Die Lehre von der Sünde und vom Versöhner" - Tholucks theologische

스터국제학술대회를 위해 본교에서 특별히 초청하였으나, 교수님의 방문을 기다리던 여러 다른 신학교나 교회에서 특별 강연과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이번 방문은 노이저 교수님께 있어서 다섯 번째 한국 방문이 된다. 세계 칼빈학회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한국을 자주 방문한 학자 중의 한 분이시지만, 이미 한국 나이로 80세이기에 노구를 이끌고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분에게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본인 스스로 또는 초청하는 학교와 그의 청중들 역시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마음을 모아 그의 강의를 경청하였고, 또한 교수님께서도 더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준비하여 발표한 것은 4편의 논문과 1편의 설교이다. 지난 1998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칼빈학회 이후에 전개되던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교수님께서도 그 동안 한국교회와의 각별한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방한을 준비하였는데, 준비된 4편 모두 칼빈연구를 위한 전망과 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며 또한 한국칼빈학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제안으로 요약된다.

## II. 노이저교수의 생애

현재 생존하시며 활동하시는 분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으나, 교수님의 삶과 그 분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나마 지내온 삶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sup>2)</sup>

---

Entwicklung in seiner Berliner Zeit" ("볼록의 초기시절에 있어서의 죄론과 구속자론에 대하여", 1991)라는 논문을 완성하였고, 본인도 교수님의 지도 하에 "하르낙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방법론적인 분석"(2002)이란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형제가 같은 교수님에게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함께 일하는 한 일례가 되는데, 각자의 전공분야가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인 것도 특이하다.

2) <http://www.uni-muenster.de/EvangelischeTheologie/Personal/personal.HTML>

그는 1927년에 독일 Nordrhein-Westfalen 주의 한 도시인 지겐(Siegen)에서 출생하였고 1931년에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도시인 헤르본(Herborn)으로 이사하였는데, 이곳에서 그의 부친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세미나(신학교)에서 목사와 교수로 봉직하였다. 부친의 신앙적 영향은 그로 하여금 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으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신의 결혼식에 자신의 스승이며 목회자인 부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본인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속 지도해 왔으며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 가장 크게 축복해줄 분이 바로 부친이기 때문에 그의 부친의 주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당시 독일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고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아간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부터 대학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다섯 학기는 괴팅겐(Göttingen)에서 보냈는데, 이 당시에 그의 스승으로 오토 베버(Otto Weber)와 에른스트 볼프(Ernst Wolf)를 언급할 수 있다. 그 후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Basel)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하게 되는데, 때마침 바젤 대학에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그는 바르트(K. Barth)<sup>3)</sup>, 투르나이(E. Thurneysen), 스텔린(E. Steahelin) 그리고 쿨만(O. Cullamnn) 등의 탁월한 교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1949년에 Nordrhein-Westfalen의 Bielefeld에 있는 베텔(Bethel)의 교회신학교(Kirchliche Hochschule)에서 첫 번째 고시 준비를 하였고, 데트몰트(Detmold)에서 그의 모든 대학과정을 마쳤다.

1950년에 괴팅겐에서 Otto Weber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으며, 종교개혁자 중의 한 사람인 멜랑흐톤(Melanchthon)의 신학을 다

---

3) 바르트 교수가 뮌스터에 재직할 당시의 상황과 역사를 기록하는 책을 노이저 교수가 1985년에 출판하였다. W. H. Neuser, *Karl Barth in Münster 1925-1930*, Zürich 1985.

루는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을 썼고, 그 이듬해에 박사학위를 위한 구두시험에 합격하여 신학박사가 되었다. 그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신학박사가 될 정도로 대단한 천재였으며, 더 귀한 것은 당시에 유명하다는 신학의 거장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구두시험 직후에 노이저 교수님은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일년 동안 유학을 하였다. 그 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와 10년간 지방 교회의 목회자로 봉사하던 중에 1960년에 대학의 강사(Privatdozent)로 부름을 받았으며, 1962년에는 독일 뮌스터대학의 전임강사로 초빙을 받았다. 그 후에 1968년에도 역시 멜랑흐톤을 중심으로하는 종교개혁에 관한 논문<sup>4)</sup>을 써서 교수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하였다.

노이저 교수는 대표적인 큰 저술을 남기지 않았으나<sup>5)</sup>, 현존하는 칼빈연구가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뮌스터대학의 교회사교수로 재직하면서 더 종교개혁에 관하여 특히 칼빈에 대하여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에 1972년에 칼빈 연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학회를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만을 모아 세계칼빈학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학회는 지금까지 매 4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되었다.<sup>6)</sup> 노이저 교수는 이 세계칼빈학회를 조직하면서부터 1998년까지

4) W. H. Neuser, *Die Abendmahlslehre Melanchtons in ihr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1519-1530*.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Lehre der Reformationierten Kirche Band XXVI, Neukirchener Verlag, 1968. 참고: Justo L. Gonzalez도 멜랑흐톤의 신학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서로서 이 책을 언급하고 있다. Justo L. Gonzalez, 이형기 차종순 옮김, 기독교 사상사(III),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p.145. 각주 5번.

5) 노이저 교수님의 유명한 책 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은 다음의 책 뿐이다. W. H. Neuser, Calvin, 김성봉 역, 나눔과 섬김 2000. 이 책은 1971년(제1판)의 Calvin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출판되지 않은 제2판을 번역하였기에 분량과 내용에 있어서 제1판과 많이 차이가 나며 또 보장되어 있다.

6) 다음 학회는 2006년 독일(Emden)과 화란(Apeldorn)에서 열리는데, 미리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지 계속적으로 이 학회를 이끌어오며 칼빈학회의 흐름의 조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동안 한국칼빈학회의 초청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그 대부분의 경우에 아세아연합신학 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특히 지난 1998년 제7차 세계칼빈학회를 마치면서 아세아연합신학 대학원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의 그 동안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면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sup>7)</sup> 이 사실에 관하여 교수님 본인께서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리고 2002년에도 세계칼빈학회의에서 갑작스런 여러 이유로 인하여 임시 총무직을 맡았으며, 특히 이 학회에서 세계칼빈학회의 나아가 갈 방향과 과제에 대한 특별한 발제는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sup>8)</sup>

교수님께서 세계의 여러 학회에 직접 참석하든가 아니면 제자들을 보내며 칼빈에 관한 연구를 놓지 않으면서,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정확 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알기 때문에, 학회나 다른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묻는 처음 던지는 질문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Gibt es etwas Neues?)”이다. 이에 대하여 발표된 주제나 테마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이미 다루었던 주제인지 알려주며 정확하게 평가해준다.

### III. 칼빈의 예정론에 관하여

노이지 교수의 이 주제에 대한 입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연구된 것이다. 1998년 이후부터 칼빈의 예정론에 관하여 발표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연구하면서 준비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노이지교수는 이 논문에서 먼저 그 동안의 칼빈의

7) 1998. 8. 29. Doctor of Divinity (h.c.)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8) 개혁신보 2002년 10월 김재성 교수님의 세계칼빈학회 참가소감문을 참고.

예정론에 관한 연구가 너무나 기독교 강요만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칼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며 자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사상이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독교 강요를 다루기는 하되 최소한 초판부터 마지막 판까지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도 칼빈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함을 밝힌다.<sup>9)</sup> 그러나 칼빈에 관한 연구가 기독교강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칼빈의 다른 연구서들이나 주석 혹은 설교까지도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칼빈에 대한 자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설교자와 목회자로서의 칼빈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노이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을 겨냥하여서도 예외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강요에 나타나는 것은 칼빈의 논리적이고 설명적이며 변증적이고 교리적인 면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칼빈의 설교나 주석들을 살펴본다면 칼빈의 따뜻함과 목회적 안목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칼빈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발걸음임을 지적한다. 그 설교들을 보면 논리적 설명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동시에 칼빈이 목회자로서 가지는 따뜻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난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노이저 교수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연구를 기독교강요와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sup>10)</sup> 그리고 예정론에 관한 설교<sup>11)</sup> 등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

9) W. Neuser,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es* 1536 to 1559",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roceedings of the Second South African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July 31 August 3, 1984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1986) p.33-54.

하며 전개해 간다. 이 주제에 관하여서도 기독교강요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철저히 논리적이며 변증적인 예정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와 달리 설교에서는 먼저 온 인류의 죄인됨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비록 논리적인 설교라고 하여도 자신도 함께 죄인됨에 대한 전제 없이는 칼빈이 예정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의 목회적인 면모를 그대로 잘 드러내 보이는 설명으로 지적한다. 유기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인간은 원래모두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인 것 즉 유기된 자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시작한다.

노이저 교수의 이러한 견해 즉 칼빈이 서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 학계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주로 다루면서 설교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과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한계를 넘어 칼빈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이저교수도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가지의 설명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을 넘어서 심층의 구조에 가면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설명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설명이지만 함께 다루어야 즉 두 설명을 서로 보충적으로 연구하여야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총체적인 면을 보게 될 것으로 말한다.

10) Calvin, Jean.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원문: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qua in salutem alios ex hominibus elegit, alios suo exitio reliquit. COR III, vol 1), Wilhelm H. Neuser, 번역 및 책임편집, <독일어제목> Von der ewigen Vorherbestimmung Gottes – durch die er die einen Menschen zur Seligkeit erwählt, die anderen in ihrem Verderben belassen hat, des weiteren von der Vorsehung, durch die er die menschlichen Ereignisse regiert ; Übereinkunft der Pastoren der Kirche zu Genf, entworfen von Johannes Calvin, Genf 1552, Düsseldorf, 1998.

11) Zusammenkunft in der Kirche zu Genf, (CO 8: 93–118) 2002년에 새로 출판된 Calvin Studienausgabe Bd.4, S.94–149에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칼빈연구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 평생을 칼빈연구에 바쳐온 자신도 아직도 연구하지 못한 칼빈의 설교나 자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언어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한다. 이 지적은 한국신학계와 한국교회에는 너무나 큰 반향으로 다가온다.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자유롭게 읽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에 관한 설교가 그리 단순치 않은 것은 그 분량이 너무나 많고 쉽지 않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칼빈의 예정에 대한 설교는 사실 기독교 강요의 예정에 대한 부분 보다 많다. A4용지 가득히 18면(각 면 48줄 정도)정도 되기 때문이며 또 여기에 나타나는 11개의 이의에 대한 변증에 있어서 먼저 이 반론에 대한 이해도 아울러 요구되기 때문이다. 칼빈의 설교가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분량이 짧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가 읽고 쉽게 이해 가능한 언어도 번역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의 기초는 언어적 능력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선 자들이 중요한 문헌들을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하여 잘 번역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IV.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이 주제에 관하여서는 노이저교수님께서 5년 전(1998) 세계칼빈학회와 관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인양대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더 구체화 한 것이다.<sup>12)</sup> 구체화하였다는 표현보다는 논문의 깊이를 더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당시 로마서7장에 대한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 대한 입장만 정립하여 분석하였다고 한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로마서7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2) 두 논문을 비교하면 그 처음부터 완전히 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서7장에서의 ‘나’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때, 많은 신약학자들이 취급하듯이 불신자 곧 회심전의 바울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이저교수도 이것을 인정하지만, 교회사적인 관심과 성경 신학적 관심이 이 문제를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기에 5년 후에 다시금 한국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본문이 불신자라고 한정되면서, 학계에서 더 이상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또 나아가 이 문제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별로 선포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주된 관점이 회심전의 사람이기에 사실 성도들에게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여 잘 선포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다시금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논문의 시작에서 칼빈의 로마서7장 주석이 현대신약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꿴듯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이 어떻게 고민하였으며 또 어떻게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있어서 칼빈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에 대한 주석의 역사적 발전사를 정리하면서, 로마서7장이 왜 교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지적한다. 먼저 어거스틴의 경우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를 문제로 여기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해석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강조점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어거스틴이 전제한 “의지(Wille)”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 루터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이 문제를 발전시켰는데, 결국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한 것임에도 그의 신학에는 ‘파라독스(simul justus et simul peccato)’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루터의 신학이 주로 구원론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어거스틴과 루터의 영향을 받지만, 그들과 비슷한 입장이 아니며 칼빈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언급한다.<sup>13)</sup> 칼빈이 본 주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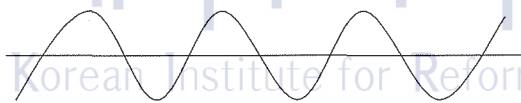
---

13) 구원과 성도의 삶과의 관계에 대하여 노이저 교수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두 신학자의 입장을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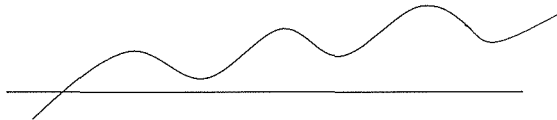
하여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이 문제가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그의 관심과 생각 때문에 칼빈이 염두에 둔 것은 성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주로하면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따르는 해석도 제시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sup>14)</sup>

그러나 노이저 교수님의 입장은 칼빈의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 입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우기려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논문의 강점이다. 때로는 억지스러운 입장이 보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이저 교수님의 한국교회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 바람이나 권고를 분명히 밝힌다: 칼빈과 같은 견해여도 좋다. 그리고 칼빈과 다른 견해여도 좋다. 아니 루터와 비슷한 신학적 입장이어도 좋고 입장을의 차이를 보여도 좋은데, 다만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할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강하게 지적한다. 즉 성경을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 한 부분으로 몰아버리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또 그것이 문맥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외면하거나 방관자처럼 성경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다.

M. Luther: simul justus et simul peccato



J. Calvin: magis et magis



14) 노이저교수는 칼빈의 로마서 7장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로마서 10:4절에 대한 이해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 V. 선교사로서 칼빈

오늘의 시각에서 선교사 칼빈에 관하여 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비록 브라질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였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특히 요즘의 관심처럼 선교의 전략이나 계획, 방법에 관하여서는 자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밝히며, 오히려 선교사로서 칼빈이 어떤 내용으로 선교하였는지에 더 중점 둔 글이 바로 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서 칼빈의 선교 대상을 규명하고, 또 그 대상들에게 전한 내용을 분석하며 선교사역을 노이저 교수는 다루고 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글을 읽으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가 만약 신학자로서 구약성경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집약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설교할 수 있을까?” 사실 성경 66권 전체의 긴 분량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한 주제에 관하여 설교하거나 강의를 위하여 준비한다면 과연 어떠한 것들을 선별하여 설명하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의 한 예로 선택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칼빈의 올리비탄 신약성경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본 서문의 내용은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반의 설교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율법과 성전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또 당시 성전 중심의 문화나 종교생활의 잘못들을 가장 잘 줄여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칼빈이 구약을 이해하는 큰 관점 중의 하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사로서 칼빈이 구약을 집약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논지를 가지고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소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도 사실 본 논문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서문은 객관적으로 보면 칼빈의 기독교강요보다 먼저 쓰여진 글이며 또한 더 많이 인쇄되고 또 읽혀지며 보급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모체가 되는 작품이기에 본 서문에 관한 연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노이저교수는 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 서문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언급하며 더 나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그의 다른 논문도 함께 한국교회에 건네주었다. 물론 이 부분도 번역을 함께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결국 이중번역 문제 곧 불어→영어→한글의 이중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일단 영어로 번역한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더 훌륭한 학자나 연구가가 원문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글로 발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칼빈의 올리비탄 신약성경의 서문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노이저 교수가 인식하는 현대교회사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교수님께서 윈스터 대학에서 교회사를 강의할 때 강조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이다. 현대 신학에는 죄의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츨(Ritschl)의 신학 분석에 있어서 최고의 관건은 죄의 문제가 빠진 가운데 전개되는 기독교론에 관한 것이다.<sup>15)</sup> 이 문제는 단지 리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리츨을 잇는 신학자들에게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강조는 남다르다. 즉 죄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주제가 생략되고 있는 현대신학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을 발표할 때 마치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이저 교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

---

15) 노이저교수님의 19세기 신학사 강의를 참조할 것.

혜를 말한다.

창세기를 정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창조,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심한 부분에 관하여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의 일관성 있는 구속사적인 인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노이저 교수는 전(全)인류의 구원과 관련한 죄문제와 선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 VI. 새로운 제안과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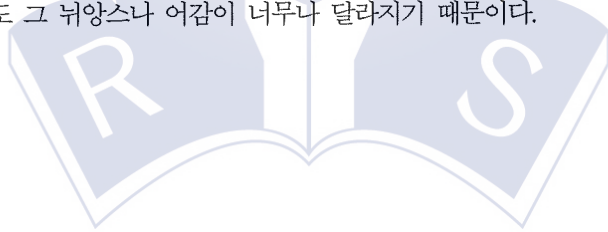
노이저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국방문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며 많은 준비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다.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더 나은 연구를 위하여 칼빈연구의 다양한 기능성과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말해도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연구 중의 하나로 올리비탄 신약성경의 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수고를 본교 권연경 교수님께서 맡아 수고하셨다. 사실 이 글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칼빈의 신학적 입장과 칼빈 이해에 있어서 귀한 자료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선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고 더 나아가 올리비탄 구약성경의 서문 역시 칼빈의 중요한 신학적 입장이 제시되기 때문에 교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지적하시며 또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님은 칼빈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물론 세계의 칼빈학회나 한국칼빈학회와 관련하여 칼빈과 그의 신학에 관한 2차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귀한 논문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2차 자료와 아울러 1차 자료들을 읽으며 연구하여야 할 것을 바란다. 그리고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은 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글들을 읽으며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유산으로 전해진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을 권한다.



130 설교자 칼빈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국방문과 관련하여 성경을 통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성경연구와 성경읽기를 많이 하는 교회와 신학회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현재 세계의 신학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7장을 통하여 지적하였듯이, 성경의 원래의 뜻만 밝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고민하며 성령의 조명 하에 힘있는 설교를 해나가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이저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부탁의 글을 첨가하고자 한다. 굳이 노이저교수의 독일어로 된 글을 함께 편집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밝힌다. 물론 번역이라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노이저교수님의 번역된 글을 읽는 것보다 독일어로 된 그의 글을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사실 그의 글은 문장의 매 단어를 위치와 의미를 선별하여 기술되었기에, 만약 문장 내에서 어느 단어의 순서 하나가 바뀌어도 그 뉘앙스나 어감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